

무안, 국회·전남도와 공조해 2024년 국고 확보 총력

국비 예산 확보 위한 맞춤형 상담 시행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국고 확보를 위해 국회, 전남도와 연계해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중앙부처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고 건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예산확보를 위한 논리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국고 건의 사업에 대한 상담사로서 서삼석 국회의원실 황준하 보좌관, 이경윤 보좌관, 전남도청 이선호 국고예산팀장이 참석해 총 34건, 2천788억 원 규모의 국고 건의 사업을 관련 부서장, 팀장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건의 사업은 ▲영산강 느리지지구 국가하천 친수사업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 농장 조성사업 ▲

지속가능한 생태체험 인프라 구축 사업 ▲창포지구 배수 개선 사업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사업 등 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예산 정책회의를 통해 2024년 국고 확보를 위해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업별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며,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국고 건의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추진 당위성을 높이는 등 국고 확보에 온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정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일, 이선호 전남도청 국고팀장을 초청해 국고예산 확보 전략 역량 강화 교육을 한 바 있다. 앞으로 국고 확보 사업의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4월 중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민재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국고 확보를 위해 국회, 전남도와 연계해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중앙부처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고 건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예산확보를 위한 논리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무안군 제공

함평,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함평군이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최근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 누수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고병원성 AI 또한 지난 시즌에 비해 22일 빠르게 확산 사례가 나오며 지역 내 전염병 확산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백신, 소독 등 방역사업에 약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역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공동방제단 4개 팀을 구성해 철새도래지 및 기금류 농장 주변 사전과 축산농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축방역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해 농가 신고 접수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문수기자

강진군, '애플망고' 초축성재배 성공

강진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 육성하고 있는 아열대과수 '애플망고'가 타 지역보다 획기적으로 수확기를 앞당기는 '초축성재배'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망고를 도입, 시범 재배와 연구를 통해 조기 수확에 대한 기술을 배양해오다 최근 조기 수확하는 기술을 완성했다.

강진읍에서 4천㎡의 애플망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명환 대표는 최근 공판장에서 처음 망고를 출하하면서, 3kg 한 박스당 30만 원이 넘는 단가를 받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번 수확은 올해 대한민국 육지부 최초 수확으로, 6월 수확 평균 가격 10만 원(3kg)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가격을 받은 셈이며, 특히 맛과 품질 면에서 타 지역 망고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강진 애플망고의 경우 20~22브릭스(Brix·과일의 당도 단

위)까지 나오는 걸로 확인됐다.

최 대표는 "지금은 국내산 애플망고가 거의 없는 시기여서 시장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의 망고는 6~7월 사이에 출하되는데, 주산지인 제주도부터 공급량이 몰려들어 해당 기간에는 고가 판매가 어렵고, 여름철 고온으로 작업이 힘든 점도 도전의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강진은 일조량이 많고 토양이 찰진 덕에 망고 맛이 좋아 수확기를 앞당기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수년간의 연구를 거쳐 결실을 맺었다. 군은 현재까지 4농가, 1ha의 면적으로 망고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특유의 맛과 향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애플망고는 아열대화 돼가는 기후변화와 높게 형성된 수확단가에 맞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박종욱기자

목포시,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점 만들기

목포시가 친절하고 깨끗한 관광 객맛이를 위해 활어회 플라자 내 음식점 상인을 대상으로 위생과 친절서비스,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교육은 위생과 친절서비스는 물론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한 심폐소생술(CPR)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이날 교육은 오는 4월 8일

과 9일 양일간 열리는 유달산 봄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관광 행사를 대비하고, 올해 10월과 11월에 열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다양한 축제는 물론 문화관광행사, 전국체전까지 준비하고 있어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봄을 맞아 단체나 가족 단위로 많은 관광객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걸맞은 친절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이날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에서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식품안전관리, 식중독예방, 친절서비스 제공, 바가지요금·호객행위 근절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실천 동참을 당부했다. /박성태기자

영암 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 벽화그리기

영암군자원봉사센터는 최근 두드림봉사단을 중심으로 영암읍 죽자동 마을 여운재로 133 주변 담벼락 약 200m 구간에 벽화그리기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영암군 자원봉사센터와 두드림 봉사단, 마을주민, 영암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으며, 곳은 날씨에

도 불구하고 열띤 활기 속에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참여자들은 담벼락 물청소부터 바탕작업 등을 시작으로 8시간의 작업 끝에 꽃과 무지개 등 동심을 조화롭게 표현한 아름다운 벽화 작품을 탄생시켰으며, 새단장한 마을 담벼락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방문객들

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했다.

양상현 회장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농촌마을에 희망과 행복을 담은 벽화를 선물하고 모두에게 잔잔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뜻깊은 봉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영암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기철기자

신안갯벌 해양쓰레기 수거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내 최대의 습지보호지역인 신안갯벌의 봄맞이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쳤다.

이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은 봄을 맞아 찾아오는 철새들과 따뜻한 봄 햇살을 맞아 활동을 시작하는 갯벌자원의 서식처를 관리하기 위한 정화활동으로 신안군 북부권역의 어의도에서 진행됐다.

어의도 어촌계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신안갯벌에 흘러들어온 해양쓰레기 35톤을 수거했다.

쓰레기 수거를 진행한 신안군 북부권역 갯벌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고된 특이퇴적체와 펼갯벌, 혼합갯벌, 모래갯벌이 모두 관찰되는 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최근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도 하다. /장홍근기자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결사반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전투기 소음에서 지켜주세요

황토와 갯벌, 생명의 땅 무안에 군 공항 이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안군